

엘리노(EL NINO)가 四象體質人에게 미치는 影響 —火熱邪가 四象人의 臟腑生理에 미치는 影響과 治療方法—

鄭 盛 文*

I. 緒 論

人間은 自然, 社會와 對立, 統一되는 整體이다. 人體는 自然과 社會環境 속에서 調和를 이루어 平衡을 유지해야만 健康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太過하거나 不及하면 相對的 平衡狀態가 깨어져서 각종 疾病이 發生한다.

예전과는 다른 炭素消費의 增加와 지구의 溫暖化로 인해, 지구 곳곳이 異常氣候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 봄이 실종되고, 여름의 날씨가 異常 高溫現狀으로 국내 氣候가 상당한 變化를 가져오고 있다. 氣候가 人體에 미치는 影響은 매우 커서 韓醫學의 古典인 『黃帝內經』에서는 醫者는 마땅히 天地間의 運氣를 알아야 한다고 하였고, 이미 傷寒, 溫病, 時氣, 疫癘, 장기, 痧瘡…… 등과 같은 疾病의 形態로 다루어 왔다.

氣候 變化는 生物의 正常的인 生理 活動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는 自然現狀이나 그 變化의 폭이 크고, 季節에 맞지 않게 變化하면 生命體에 큰 피

해를 주며, 人體가 自然의 異常 變化에 適應하지 못하면 다양한 疾病의 發生과 疾患의 惡化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人體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엘리노 등 異常氣候變化가 體質에 따라 相異한 發病機轉과 病證이 있는 四象人의 臟腑 生理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고 어떤 病證을 발생하는가를 알아 보고, 이에 대한 治療方法을 摸索하고자 한다.

II. 本 論

엘리노(EL NINO)는 원래 스페인어로 어린소년이라는 뜻으로, 남아메리카 서해안을 따라서 흐르는 차가운 페루 해류 속에 異常暖水가 갑자기 침입하는 해류의 異變 現狀으로, 무역풍이 약해지는 12~2월에 잘 일어난다고 보고되어 있으나, 지구 전체의 온난화 등으로 인하여 전체 해류와 공기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어 세계곳곳에 異常氣候를 일으키고 있다¹⁾.

* 慶熙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體質醫學 專攻

1) 동아출판사 백과사전부 :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91.

이제까지 밝혀진 바로는 엘리뇨 발생시 일반적으로 인도 몬순이 활발하지 못하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호주 북부 등 서태평양 적도 연안국가에서는 심한 가뭄현상이 나타나는 반면에 화남 및 일본 남부 등 아열대 지역은 잦은 홍수의 피해를 입는 경향이 있다.

즉 엘리뇨란 남미 해안으로부터 중태평양에 이르는 동태평양 적도지역 넓은 범위에서 해수면의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진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이다²⁾. 이와 정반대로 라리냐(LA NINA, 스페인어로 어린소녀)라는 것은 해수면의 온도가 낮아짐으로써 겨울에 혹심한 추위와 가뭄으로 燥寒한 異常氣候를 가져오는 것이다.

지구위의 自然現狀들은 태양과 지구의 공전과 자전의 운행사이애 일어나는 偏差로 인하여 다양한 현상이 일어나고, 옛날의 賢人들은 文字를 통하여 이의 인식을 표현해 왔는데 이의 氣候變化를 風, 寒, 暑, 濕, 燥, 火, 熱이라는 개념으로 포괄시켜 陰陽五行學說에 맞추어 分析하였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五運 六氣學”으로써 自然氣候 變化의 原理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自然界的 天時氣候의 變化 및 天時氣候의 變化가 宇宙의 萬物, 특히 人間에게 미치는 影響을 解析하는 古代의 理論方法으로, 陰陽五行을 바탕으로 하고, 天人相應이라는 全體概念의 基盤위에 수립되었다.

여러 가지 疾病 중에서도 특히 溫病이 氣候의 異常變化와 가장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데, 『黃帝內經素問. 刺法論』에서 溫病의 發生原因으로 거듭 강조한 것이 “三虛”, “重虛”이다. “三虛”란 天運이 不及하고 人體正氣가 內傷한데다가 거듭 虛邪가 侵入한 것을 의미하고, “重虛”란 天運不及한데다가

人體正氣가 內傷한 것을 말한다. 天運不及이란 節氣에 비해 物候가 늦은 것인데, 쉽게 설명하면, 節氣上으로는 이미 여름이 되었는데 草木, 氣候 등의 自然現狀이 아직 여름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虛邪란 그 계절에 맞지않는 氣候變化를 말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겨울이 따뜻하거나, 봄에 지나치게 덥거나 또는 춥거나, 여름에 추운 것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다. 이와 같이 運氣의 異常變化는 반드시 萬物의 生化에 影響을 미치므로 쉽게 溫病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지고, 이러한 溫病의 種類로는 風溫, 春溫, 暑溫, 伏暑, 秋燥, 溫疫, 溫毒, 濕溫 등 여러 종의 外感急性熱性病은 모두 溫病이라 통칭할 수 있다³⁾.

火의 非正常的인 상태를 火邪, 熱邪라고 지칭하는데, 이것들이 人間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多樣하다.

첫 번째로 火熱은 陽的인 性質을 가진 邪氣로 燔灼하고 上炎하여 高熱, 惡熱, 煩渴, 汗出 등의 症狀이 있으며, 各 臟腑에 들어가서는 多樣하게 나타나는데 心火가 上炎하면 口舌生瘡 등의 症狀이 나타나고, 胃火가 熾盛하면, 齒齦腫痛하며, 肝火가 上炎하면 頭痛, 目赤腫痛을 일으킨다.

두 번째로는 陰津液을 損傷시켜 燥化하는 症狀을 일으키게 하는 原因이 되어 口渴喜飲, 咽乾口燥, 大便堅結, 小便短赤 등 津液의 損傷과, 血液 또한 陰液의 一種이므로 火熱로 인하여 損傷을 받으면 血熱症과 血虛症, 그리고 燥熱症狀이 나타나기도 한다.

세 번째로는 쉽게 生風動血하고 腫瘍을 일으키는 데 “熱極生風”이라하여 風의 症狀이 나타나서 高熱, 昏迷, 譫語, 四肢搐搦, 頸項強直, 角弓反張 등

2) 박정규: 엘리뇨 발달과 세계 기후변화, 엘리뇨 WORKSHOP 발표집, 서울 기상청, p 3, 1997.

3) “冬傷於寒, 春必病溫” 『素問, 生氣通天論』, “凡病傷寒而成溫者, 先夏至日者爲病溫, 後夏至日者爲病暑” 『素問, 熱論』

의 症狀이 나타나며, 血이 火熱을 받으면 妄行하여 吐血, 衄血, 便血, 尿血, 子宮出血 등 出血症狀과 아울러 熱을 받은 血은 肌膚에 머무르면 發斑을 形成하여 局所部位에 紅, 腫, 熱, 痛으로 進行이 되어 腫瘍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⁴⁾.

이처럼 黃帝內經이후 氣候가 大熱하여 溫熱毒邪氣를 感受하거나 異常氣候나 冬節의 傷寒에 의하여 春夏에 發生하는 熱性病을 溫病이라하여 멀거나 가깝거나 간에 모두 같은 病을 앓는다고 생각하였다. 內經이후 外部 氣溫 差異의 適應의 不調로 인한 人體의 病理機轉을 段階別로 說明하고 있는 『傷寒論』에서는 人間과 病因에 대하여 一般的이고 劃一的인 規定을 전제로 證을 重視하여 客氣의 반대방향인 太陽(三陽), 陽明(二陽), 少陽(一陽), 太陰(三陰), 少陰(二陰), 厥陰(一陰)의 順으로 疾病段階를 說明하는 六經病證論을 전개하였다⁵⁾. 그러므로 人間은 天地(大宇宙)의 變化에 맞추어 人間 개개인의 特性에 관계없이 항상 同一하게 變化한다라고 생각하였고, 특정한 證이 어떤 특정한 人間群에게서만 發生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證治醫學에서는 人間과 發病을 일으키는 病因으로서 邪氣 즉 風·寒·暑·濕·燥·火⁶⁾ 또는 飲食失節이나 房勞 七情 등으로 病因이 規定되어 있어서 이 病因들은 特徵적인 發病特性, 發病部位, 治療方法이 一律적으로 規定되어 있어서 同一한 病因에 의해 발생한 證은 모든 人間에게 同一하게 發生하고, 이러한 病因은 肝·心·脾·肺·腎 五臟자체내의 相互 內的作用과는 관계없이 규정된 부위에 發病을 일으킨다고 보았으나, 李濟馬는 “喜怒哀樂膠

着則成病”⁷⁾이라하여 主體內的 喜怒哀樂이라는 性情의 偏急의 發露가 病因임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哀性의 遠散하고 怒情이 促急으로 인해 肺大肝小의 臟局을 가진 太陽人에게 疾病을 일으키는 原因은 哀性의 深着과 怒情의 暴發인 것이다. 太陽人의 解弛이나 噎膈證도 外部의 邪氣가 侵襲하거나 氣血이 衰殘하여 惹起된 것이 아니라 哀怒의 性情이 深着하거나 暴發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四象臟理論에서는 個別的 性情의 發露樣相이 發病의 주요 原因으로 규정하여 病因은 따로 밖에서 客體的으로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病을 앓는 主體의 性情의 發露過程으로 보고 있다.

즉 四象醫學에서는 發病主體인 太少陰陽人의 內的 臟局의 長短등의 偏在와, 體型氣象, 性質才幹, 容貌司氣, 表裏陰陽升降과 內外呼吸散聚 등 發病主體의 變化樣相에 따라 엘리뇨와 같이 급격한 異常氣候變化에 대해 각기 體質의 特性에 의한 個別症狀과 證候 그리고 危急輕重의 樣相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四象人의 體質이 각기 相異하므로 六經病證도 다르게 나타나고 局限되는 바가 있다고 보아 “六經病證가운데 三陰病은 모두 少陰人의 病證이고, 少陽病證은 곧 少陽人의 病證이고, 太陽病·陽明病은 少陽人·少陰人·太陰人의 病證이 모두 있는데 少陰人의 病症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岐伯이 말한 바의 太陽·少陽·少陰經病은 모두 少陽人의 病이고, 陽明·太陰經의 病은 모두 太陰人의 病이며, 厥陰經病은 少陰人의 病이다.”⁸⁾ 라고 하였다.

4) 金完熙 外 3人: 韓醫學原論, 서울, 成輔社, p 286, 1982.

5) 朴贊國編譯: 問答式 傷寒·金匱·溫病, 서울, 成輔社, 1991.

6) “夫百病之生也, 皆生于風, 寒, 暑, 濕, 燥, 火 以化之變也” 『素問, 至眞要大論』

7) 『東醫壽世保元』 “廣濟說”

8) 『東醫壽世保元』 “醫源論”

이와 같이 지속적인 무더운 氣候로 인한 짜증과 스트레스(勞心焦思)는 太少陰陽人の性情(喜怒哀樂)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와, 적당한 過不及인 臟腑 大小의 均衡을 깨뜨려 病的인 상태를 유발하여, 過한 臟腑를 더욱 強하게 하고, 不及한 臟腑의 機能을 더욱 弱하게하여 各 體質의 脆弱點에 따라 다양한 症狀이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엘리노(火熱邪)가 太少陰陽人の 臟腑生理에 미치는 影響에 대해 살펴보자.

1. 火熱邪가 少陰人の 臟腑生理에 미치는 影響.

少陰人은 원래 脾局과 腎局의 陽氣가 弱함으로 腎受熱表熱病證에서는 약해진 脾局과 腎局의 陽氣가 火의 기운을 만나면 더욱 陽氣의 上升을 방해함으로 鬱滯의 狀態로 發展 하기 쉬워 鬱狂證과 亡陽證이 나타나는데, 皮表의 熱化가 太過하여 太陽 皮表의 開陽作用의 太過로 인한 泄氣 즉 腎局의 元陽之氣가 손상된 亡陽(少陰人은 원래 冷하나 陰盛格陽이 되어 敗陽이 밖으로 쫓기면 煩熱이 나면서 땀을 많이 흘림)의 症狀이 나타날 수 있고, 脾胃之氣가 虛하여 나타나는 氣虛症狀 즉 大腸 寒과 腎陽困熱 등의 鬱狂證(鬱狂證의 無汗은 陽氣는 아직 있으나 營衛의 陰陽이 調和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營衛가 調和를 이루도록 해야 된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熱로 인한 脾의 潤氣가 말라가는 脾約證과 胃의 津液이 말라 생기는 胃家實의 燥實證을 고려해야 한다.

胃受寒裏寒病證에서는 脾胃가 冷하므로 熱邪로 인한 暑泄로 太陰證泄瀉와 少陰證泄瀉가 생기고, 심한 경우 陰毒證, 直中陰經으로 乾霍亂關格, 溫黃證 등이 생길 수 있다.

2. 火熱邪가 少陽人の 臟腑生理에 미치는 影響.

少陽人은 少陰人과 반대로 脾局과 腎局의 陰氣가 熱邪에 의하여 壅滯되어 下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體質이므로, 陰氣가 虛하여진 상태에서 熱化가 진행되므로 陰虛陽盛의 疾患이 多發한다.

脾受寒表寒病證의 경우 熱邪가 少陽人の 腎局陰氣를 빠뜨려(陷) 버리고 脾局陰氣를 막아(壅) 버리므로 인해, 脾局陰氣가 下降하여 腎局에 이어지지 못하고 腎間에 凝聚되어 固着되고 갇히고 막혀서 口苦, 咽乾, 目眩, 寒熱往來, 但寒無熱로 인한 耳聾證 등 少陽經의 鬱熱로 인한 症狀들이 대부분으로 結胸, 腰痛, 陰液이 고갈된 糖尿, 前立腺炎, 陰部濕疹, 대상포진 등 皮膚疾患이 多發할 수 있는 亡陰證이 나타난다. 亡陰證이란 아래(下)로 陽盛格陰이면 陰이 陽에 막히게 되어 陰이 膀胱으로 下降하지 못하고, 오히려 上升하여 背脊로 上逆하고, 안쪽의 膈裏로 달아나는 까닭에 腸胃畏寒, 而泄下한다. 그러므로 畏寒, 而泄下는 陰盛이 아닌 것으로 소위 內炭外水한 것이므로 장차 陰이 없어지려는 징조인 것이다. 身熱, 頭痛, 泄瀉 亡陰證과 身寒, 腹痛, 泄瀉 亡陰證으로 나누어 진다.

胃受熱裏熱病證의 경우 胃熱로 인해 大便不通, 胸膈熱證, 心下痞悶, 眼球角膜炎, 氣管支疾患, 背癰, 腦疽, 脣腫, 陽毒發斑, 流注丹毒 등의 症狀이 자주 發生하고, 熱氣가 위로 올라가 胸中煩燥, 舌赤, 脣腫하고 多渴引飲, 小便多하는 消渴病이 올 수 있다.

이와 같이 少陽人病은 火熱로써 病이 되는 까닭에 變動이 迅速하므로 初證이라도 가볍고 쉽게 보아서는 안된다.

3. 火熱邪가 太陰人의 臟腑生理에 미치는 影響

太陰人은 肝大肺小함으로 胃脘受寒表寒病과 肝受熱裏熱病에 잘 걸리는데, 肝受熱裏熱病證일 경우 더욱 肝의 燥熱이 심하여 질 수 있으므로 陽明證의 熱化로 인한 乾燥證과 便閉, 中風, 煩渴, 糖尿, 疹, 便血 등 陽毒證과 燥熱證이 多發할 수 있다. 四時不正之氣에 감염되면 痰涎壅盛, 煩熱, 頭疼, 身痛, 憎寒壯熱, 頭項, 睛痛하거나 혹은 赤眼, 口瘡, 喉痺 하며 뺨에 크고 작은 멍울(腫)이 있고, 기침을 하면 진한 가래가 나오며, 재채기를 한다.

胃脘受寒表寒病證일 경우에는 더욱 鬱滯가 일어나서 胃脘이 衰弱하고 表局虛薄하여 正邪가 서로 싸우는 形勢이고, 이로 인한 中濕證이 생겨 食後滿(消化障礙), 喘促, 虛勞, 多汗證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무릇 溫疫에는 먼저 그 사람이 평소에 갖고 있던 병이 어떠한가를 관찰해야 발생한 병의 表.裏.虛.實을 알 수 있다. 즉 평소에 病寒한 者가 溫病에 걸리면 寒證이 되고, 평소에 病熱한 者가 溫病에 걸리면 역시 熱證이 되고, 평소에 病輕한 자가 溫病에 걸리면 重證이 되고, 평소에 病重한 자가 溫病에 걸리면 險證이 된다.

4. 火熱邪가 太陽人의 臟腑生理에 미치는 影響

太陽人은 小腸에서 吸收하는 氣液陰涼之氣가 不足하고, 胃脘에서 내보내는 氣液陽溫之氣가 盛하다. 그러므로 火熱邪로 인해 胃脘에 陽溫之氣가 너무 盛하면 胃脘의 血液이 乾燥해지고, 上焦로 내보내는 氣는 太過한데 반해 中焦로 받아들이는 氣는 太不足하여 飮食物이 吸入되지 못하고 도로 나오는

膈(胃脘의 噎膈)과 反胃(胃口的 噎膈)證이 나타날 것이다.

또한 長夏의 濕熱이 盛하여 兩脚痿厥癱瘓이 나타나는 筋痿證 즉 解休病이 나타날 수 있다.

1) 治療方法和 豫防

既存의 證治醫學에서는 溫病으로 인한 疾病의 治療方法은 衛氣營血辨證과 三焦辨證 등에 따른 診斷과 陰陽五行學說에 바탕을 두고 人體내의 陰陽의 不調和와 太過不及을 藥物의 四氣, 五味, 升降, 浮沈에 따라 投與하여 人體의 구조들의 均衡을 유지하고 病因의 除去가 주요 治療法이지만, 李濟馬는 性情發露의 偏急을 調節하는 주체적인 노력을 강조하였다.

즉 '邪氣'라는 것은 따로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勞心焦思라는 주체의 불건전함에 의한 것이고, '元氣'라는 것도 藥物에 의해 보충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平心靜慮'라는 주체적 조절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⁹⁾.

그러므로 藥物에 있어서도 太少陰陽人 各各의 고유한 喜怒哀樂의 기운을 조절할 수 있는 약물로 엄격히 분류되어 있고¹⁰⁾, 대개의 경우 약물의 투여는 주체적 노력이라는 主治療와 병행되는 補助療法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險證, 危病 등 주체적 노력으로 힘든 경우(예를 들면 亡陰, 亡陽病)에는 藥物은 主要 治療法이다.

少陰人인 경우 表證에서는 脾局陽氣와 腎局陽氣가 火邪에 의해 더욱 鬱滯되어 上升하지 못하여 鬱狂證과 亡陽證이 나타나는데 이때에는 乾薑, 附子와 같은 辛熱之氣가 있는 藥物로 元陽之氣를 補함과 동시에 陽氣를 皮表로 上升시킬 수 있는 治療方

9) “平心靜慮則 陽氣上升輕清而 充足於頭面四肢也 此 元氣也 清陽也” 『壽世保元, 少陽人胃受熱裏熱病證』

10) “明知其人而 又明知其證則 應用之藥 必無可疑” 『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

法. 즉 陽氣上升을 목표로하여 升陽益氣시겨야 한다. 만약 裏證인 경우에는 太陰證과 少陰證으로 되기 쉬우므로 陰實之氣의 上升으로 脾胃의 陽氣가 더욱 鬱하여져서 寒濕이 생기므로 寒濕之氣를 調節하여 주는 半夏, 白朮, 陳皮 등을 사용하고, 脾의 精을 補하여 주는 何首烏 등을 사용하여 裏陰降氣시켜야 한다.

즉 脾胃氣(少陰人의 保命之主인 陽暖之氣)를 살리면서 降陰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少陽人의 경우에는 表裏證에서 熱邪에 의해 脾局陰氣와 腎局陰氣가 내려가지 못하고 凝滯되어 亡陰證과 結胸證, 大便不通이 생기므로 清裏熱, 降表陰시켜 정상적인 津液이 유지되도록 하고, 陰氣를 補充하고 降陰作用을 도와 줄 수 있는 辛冷性인 荊芥, 防風등과 甘冷한 性味인 生地黃, 石膏 등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즉 少陽人의 保命之主인 陰清之氣를 保存해야 한다.

太陰人의 경우 表病에서는 寒濕이 盛함으로 인해 胃脘之氣가 鬱滯되어 中濕證이 생기므로 麻黃(辛熱之氣로 皮表로 上升)과 桔梗, 杏仁(熱邪로 인한 上升作用을 調節함과 동시에 潤한 性質로 津液을 補充) 등을 使用하여 胃脘之氣를 上升, 潤燥시켜야 한다. 裏病證에서는 火熱이 內部로 進行하여 津液이 말라 燥實證, 燥熱證이 생기므로, 葛根(陽明經의 모든 邪를 升發시킴, 止渴生津)과 黃芩, 蘿菴子, 大黃 등의 類를 사용하여 肝熱肺燥의 症狀를 清其熱, 潤其燥해야 한다.

太陽人은 熱邪에 의해 胃脘에서 내보내는 氣液陽溫之氣가 더욱 盛하고, 吸收하는 氣液陰涼之氣는 不足해져서 飲食物이 吸收되지 못하고 도로 나오는

噎膈과 反胃證이 나타나므로 獼猴桃(治熱壅反胃), 蘆根(治乾嘔), 葡萄根(止嘔噦)등 補肝하는 藥으로 太陽人의 保命之主인 吸聚之氣를 도와야 한다.

위와 같이 太少陰陽人의 臟局의 大小偏差에 따라 各各의 生活習慣과 有益한 飲食物이 다르므로 급격한 氣候變化로 인한 異常高溫氣候일 경우 자기 體質에 맞는 飲食과 生活習慣(예를 들면 少陰人일 경우 아무리 더운 날씨라도 참외, 수박등 찬음식을 조심하고, 땀을 흘리지 않도록 냉수욕을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에 유념하고 氣候에 대한 人體 스스로의 適應力, 抵抗力을 키우고, 性生活의 節制로 精氣를 保存하고, 적당한 運動으로 氣의 循環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豫防的 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喜怒哀樂 性情의 調節이다. 평상시에 “蕩滌剛愎偏急 與人並驅爭塗之 淡食服藥 修養如釋道”¹¹⁾, “恭敬其心 蕩滌慾火 安靜善心”¹²⁾, “必戒深哀 遠嗔怒 修清淨”, “必遠嗔怒 斷厚味”¹³⁾ 등의 노력이 疾病豫防과 健康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

III. 結 論

예로부터 人間을 小宇宙라고 생각하고 自然은 大宇宙이므로 人間은 自然 속의 일부이고 自然의 變化중 氣候의 變化를 陰陽, 五行, 六氣學的으로 어떤 規則을 찾는 學問이 五運六氣學으로, 엘리노르 대표되는 지금의 異常氣候가 人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環境에 노출되어 있는 人間이 스스로 대비하는 방법과 이에 대한 臨床診斷과 治療方法이

11)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泛論”
12) 『東醫壽世保元』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
13) 『東醫壽世保元』 “太陽人外感腰脊病論”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왜냐 하면 異常 氣候變化는 꼭 엘리뇨가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반복하여 나타날 것이고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自然의 變化가 正常的이지 않고 外部 氣의 異常變化에 대한 人間이 適應하지 못하여 스스로 생겨나는 人體 內部的 變化를 豫測하고, 外部의 氣와 內部的 氣의 不調和를 調節해 주는 것이 韓醫學의 溫病의 治療方法인 것이다.

이와 별도로 四象醫學에서는 太少陰陽人의 喜怒哀樂 性情發露의 過不及을 病因이라고 생각하므로 엘리뇨로 대표되는 이상 기후에 대해 太少陰陽人의 喜怒哀樂 性情發露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이로 인해 各各의 體質에 따른 症狀과 病證이 달리 나타나고, 輕重의 차이가 있다.

少陽人, 太陽人 등 上升의 機轉을 가지고 있는 陽人들은 火熱의 盛함과 이로 인한 燥化가 될 수 있는 疾患이 생길 수 있고, 少陰人, 太陰人 등 沈滯의 機轉을 가지고 있는 陰人들은 火熱이 盛함으로 인하여 津液이 마름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활동하는 元氣의 消耗이 일어나는 疾患이 유발 될 수 있다.

그러므로 各各의 體質에 따라 올바른 生活習慣과 飲食攝取, 적당한 運動 그리고 精神的인 安定을 도모하여, 스스로가 自然氣候의 어떤 變化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陰陽氣의 升降出入을 잘 유지하여 正氣를 잘 保存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金完熙 外 3人 : 韓醫學原論, 서울, 成輔社, 1982.
2.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3. 東亞出版社 百科辭典部 : 東亞原色世界百科辭典, 서울, 東亞出版社, 1991.
4. 朴贊國編譯 : 問答式 傷寒. 金匱. 溫病, 서울, 成輔社, 1991.
5. 박정규 : 엘리뇨 발달과 세계 기후변화, 엘리뇨 WORKSHOP 발표집, 서울 기상청, 1997.
6. 蔡仁植 : 傷寒論譯註, 서울, 高文社, 1987.
7. 崔昇勳 : 內經病理學, 서울, 통나무, 1993.
8. 洪淳用, 李乙浩 : 四象醫學原論, 서울, 杏林出版, 1985.
9. 韓東錫 : 東醫壽世保元註釋, 서울, 誠理會出版社, 1967.
10. 朴寅商 : 東醫四象要訣, 서울, 소나무, 1991.
11. 金 洲 : 性理臨床論, 서울, 大星文化社, 1997.
12. 崔竣培 : 異常氣候에 대한 韓醫學의 分析和 治療方法, 大韓韓醫學會, 1998.
13. 李廣泳 : 傷寒論과 四象醫學의 病機에 대한 比較研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7.
14. 宋一炳 : 四象人病證藥理의 成立過程과 그 運營精神에 대한 考察, 四象醫學會誌 Vol. 8, 1996.
15. 이항재 : 四象醫學과 證治醫學의 比較研究, 四象醫學會誌 Vol. 9. No. 2, 1997.